

# 협회소식

## NEWS

### 본회, 신임 회장에 최상백 부회장 선출



#### -제19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본회는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에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 및 부회장, 도협의회장, 각 지역 지부장 등 10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제1호 의안 : 19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제2호 의안 : 1998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위임(안) ▲제3호 의안 : 임원선임(안)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모두가 손해가지 않는 양돈을 영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양돈협회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국내 양돈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노영한 전무는 대의원들에게 ▲최근 양돈 산업 동향 및 주요업무 ▲1998회계년도 사업실적 ▲19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보고했다. 또한 김건태 감사는 지난 1월중에 실시한 본회 감사결과를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안건심의에 앞서 97년 최우수 지부로 선정된 남제주지부(지부장 : 이문하)와 우수지부로 선정된 김제지부(지부장 : 이관호), 거창지부(지부장 : 이봉우)에 대해 최우수와 우수지부상을 수여하였으며, 흥성지부 차은숙씨에게 장기근속하면서 지부사업을 잘 보조하였기에 최우수 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안건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총세입 3,868,565천원과 총세출 3,615,907천원으로 구성된 19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을 승인했다(자세한 내용은 66쪽 참조).

## 본회 최상백 회장 취임식 가져



본회는 지난 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임원실에서 신임 최상백 회장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IMF시대의 양돈산업이 어두운 긴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전직원이 노영한 전무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업무를 충실히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 부서장들은 최상백 신임회장에게 부서별 업무보고와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본회, 98년도 제1차 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식당 "성전"에서 98 회계연도 제 1차 이사회의를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 19명의 이사와 감사, 도협의회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의에서 이사들은 먼저 노영한 전무로부터 최근 양돈산업 동향과 97회계년도 협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이사회의는 ▲97회계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지부설립 승인 취소(안) ▲돼지 계통출하사업 중단(안) ▲정기총회 상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의는 97회계년도 수지결산 심의에서 세입은 예산 4,249,012천원에서 380,447천원이 감소한 3,868,565천원, 세출은 예산 4,249,012천원에서 633,105천원이 감소한 3,615,907천원으로 하는 97회계년도 수지 결산(안)을 심의했다.

이로써 본회는 지부 73개, 지회 8개로 총 81개 지부(지회)가 되었다. 돼지계통 출하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의 확대 설치로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돼지 계통출하사업을 오는 3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는 '97 회계연도 수지결산 승인(안)과 임원선임(안), '9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위임(안) 등 5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경원이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철폐하고 면세할 방침이었으나 축산관련 단체와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이를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 본회 1·2검정소, 97년 최우수 및 우수농장 시상

### -최우수농장 성현농장, 광암축산 선정

본회 제 1검정소 검정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박영일 교수)는 지난 2월 4일 제162차 검정위원회에서 97년 최우수 종돈장에 성현농장(대표 : 김영석), 우수 종돈장에 경기양돈(대표 : 이윤원), 설천농장(대표 : 박한용)을 선정하여 2월 20일 제 162

차 검정돈 경매일에 시상하였다. 한편 제 2검정소 검정위원회(위원장: 경북대 김봉환 교수)는 지난 1월 13일 제 91차 검정위원회에서 97년 최우수 종돈장에 광암축산(대표: 이내홍), 우수 종돈장에 보광축산(대표: 김성천), 경기양돈(대표: 이운원)을 선정하여 지난 2월 5일 제 91차 검정돈 경매일에 시상하였다.

## 여성동아, “돼지고기 요리 66” 별책부록 발간

### - 본회, 보관 관련자료와 사진 제공



우리나라 최대의 여성 월간지인 “여성 동아”는 올해 2월호에 별책부록으로 “돼지고기 요리 66”을 발간했다. 이 별책부록에는 “값싸고 푸짐해요”라는 부제목을 달아 돼지고기가 싸면서 푸짐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요리책에는 돼지고기 요리 66가지가 실려 있는데, 특히 돼지고기를 이용해 만든 국·찌개·전골·찜·탕 등이 실려있어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돼지고기를 이용한 김치찌개, 두부찌개, 순두부 쪽배기, 부대찌개, 된장 쪽배기 등 가정에서 흔히 요리하는 방법들이 실려있다.

요리방법 또한 만드는 재료와 방법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요리에 서투른 신세대 주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성된 요리는 화보로 커다랗게 실려있어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돼지고기를 이용해 요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 “알리는 말씀”

본회는 사료비와 난방유류비 및 기타 제반 물가고로 인하여 종돈능력검정소 검정돈의 경매 하한가를 금년부터 부득이 두당 5만원(11%)을 인상하여(♂ 50만원, ♀ 45만원) 경매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특히 이 책자에는 돼지고기와 관련해 본회가 제공한 각종 정보가 들어 있다. “돼지고기는 장수식품”, “돼지고기를 이용한 민간요법”, “돼지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좋은 부추”, “국산-수입 돼지고기 구별법”, “돼지 내장-알고보면 영양덩어리” 등 각종 정보가 실려 있어 돼지고기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본회는 이 책자제작을 위해 본회가 보관하고 있는 돼지고기 관련 자료와 사진을 여성동아에 제공했다.

## 본회, 97년 검정돈 2,696두 경매 분양

### - 검정돈 경매 가격 평균 23% 올라 인기 반영

97년 본회 1,2검정소의 종돈능력검정두수가 전년 대비 2.3%(129두) 줄어든 4,869두로 집계됐다. 검정소별로 보면 제 1검정소가 2,463두를 입식해 전년보다 6.7%(179두) 줄었으며, 2검정소는 2.1%(50두) 증가했다. 검정돈이 경매를 통해 분양된 두수는 1,2검정소를 합쳐 총 2,696두였다.

제 1검정소의 경우 97년 한해동안 월 평균 205두씩을 입식하였다. 검정종료두수는 2,500두로 이중 57%(1,426두)가 경매를 통해 분양되고 나머지는 불합격 또는 미상장 처리되었다. 검정돈의 일당 평균 증체량은 938g, 등지방 두께 1.38mm, 사료요구율 2.42, 선발지수 215점 이었다.

제2검정소의 경우는 지난해 월평균 200.5두씩 입식하였다. 검정종료두수는 2,350두로 이중 54%(1,270두)가 경매를 통해 분양되었다. 검정돈

의 일당 평균 증체량은 918g, 등지방 두께 1.41, 사료요구를 2.34, 선발지수는 218점 이었다.

검정돈의 경매가격은 제 1검정소의 경우 평균 749,000원으로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2검정소는 22% 오른 725,000원이었다.

## 본회, 97년도 결산감사 수감



본회는 지난 1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97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본회 김건태 감사는 양일간에 걸쳐 97년도에 본회가 추진한 회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였다. 김건태 감사는 본회 일반사업과 지도사업, 자조금 사업, 제 1·2검정소사업 등 97년도에 본회가 추진한 사업계획대 실적과 예산대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이고, 제1검정소도 방문하여 현장감사도 벌였다.

한편 본회 하수갑 감사는 감사 당일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감사를 벌이지 못했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경남도협의회, IMF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논의

경남도협의회(회장 : 최영렬)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 창원 부곡 일성콘도 커피숍에서 최영렬 도협의회장, 본회 제2검정소 김형균 소장, 각 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신임지부장 상견례와 IMF 위기극복을 위한 양돈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중앙회 임원선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 경기도협의회, 정기 월례회의 개최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지난달 2월 6일 11시 역삼동 소재 일식당 「성전」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 및 이명복 도협회장, 각 지부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제1차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대책을 논의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 등을 이야기 하는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논의했다.

### 충북도협, 자가배합사료 활성화 방안 논의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2월 10일 12시에 충북 청주소재 흥도회관에서 98년 제2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그리고 충북지역 각 지부 임원·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각종 현안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자가배합사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으며, 중앙회 임원선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충남도협, 배합사료품질 저하에 따른 우려 표명

전북도협의회(회장 : 김현병)은 지난 2월 10일 12시에 홍성 양돈협회 사무실에서 98년도 제2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본회 정호풍 지도부장, 김현병 충남도협의회장, 그리고 충남지역 각 지부 지부장·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동물약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른 대책과 배합사료품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논의했다.

### 김해지부, 지부장 박삼곤씨 선출



박삼곤 지부장

김해지부(지부장 : 박삼곤)는 지난 1월 15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만기가된 유재환 지부장의 후임으로 박삼곤씨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에 의해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는 김종철, 임형근씨가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한편 박삼곤 신임 지부장은 경남 한림면 장방리 390-1번지에서 삼광 종돈장을 경영

하고 있으며, 지난 94년에는 김해 A·I센타를 설립하고, 97년에는 한국인공수정사업소협의회장을 맡아 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군산지부, 지부장 이경래씨 선출



군산지부(지부장 : 이경래)는 지난 1월 9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임 김운중 지부장 후임으로 이경래(42세)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이경래 지부장

또한 군산지부 회원들은 신임 부지부장에 박연근씨, 총무에 신용철씨를 선출하고 감사에는 이록상, 문귀화씨 등을 유임시켰다.

신임 이경래 지부장은 지난 86년부터 양돈업을 시작했으며,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247번지에서 비육돈 전문농장인 경성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강진지부, 장흥지부 설립승인 취소

지난 2월 2일 제 1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수가 부족하여 지부유지가 어려운 강진지부, 장흥지부의 지부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다.

### 거창지부, 사무실 이전

거창지부(지부장 : 이봉우)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72-2번지에 위치했던 사무실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43-3번지로 이전하였다. 전화번호와 FAX는 전과 동일하다. **義豚**